

食糧問題 解決의 關鍵

統一벼 品種 育種成果커
協同研究 · 國際學會와 紐帶強化



玄信圭 會長

韓國育種學은 育種에 關한 研究를 發展促進하여 育種學의 進歩를 하며 그 知識을 보급하는 使命을 가지고 1969년 11월에 그 發足を 보게 되었다. 育種學은 遺傳學과 더불어 農學의 基礎를 이루는 學門으로 이러한 基礎學門에 몸을 받쳐 生의 보람을 찾고 있는 農業各分野에 흠어져 있는 育種學徒들이 서로 團合하여 育種學의 研究를 發展促進시켜서 育種學發達에 寄與하리라는 決意로서 發足한 本育種學會는 다음과 같은 目標을 向해 나아가고 있다.

1. 育種學의 發達

韓國의 育種學으로 하여금 世界育種學發達에 貢獻하는 水準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 우리 育種學會의 至上目標이다.

世界의 育種學은 人類의 食糧問題解決에 對하여 지금까지 놀라운 功績을 이루워왔다. 卽 過去一世紀 以內에 굶주림과 飢困에서呻吟하던 Sweden의 農民을 세계에서 가장 富裕한 農民으로 바꾸어 준것도 育種의 科學과 技術의 힘이었으며 또한 20世紀에 들어와서 美大陸에서 옥수수 的 奇蹟的인 增産을 가져오게 한것도, 또한 最近 동남아시아에서의 米穀의 單位面積生産量을 5倍로 增大시켜서 世界食糧問題의 큰 曙光을 보이게 한것도, Mexico와 Nigeria에서 옥수수 밀보리 등의 多收 및 高당백질 等的 劃期的인 新品種을 開發하여서 世界食糧問題解決에 크게 貢獻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育種의 科學과 技術의 貢獻임은 世人이 모두 認定하고 있는 事實이다.

이러한 育種學의 빛나는 傳統을 이어받아 韓

國의 育種學으로 하여금 國內의 食糧問題解決과 同時에 나아가서 世界食糧問題 解決에까지 貢獻하는데 이르게함이 우리 育種學會의 目標이다.

2. 協同研究의 育成

目標과 抱負에 比하여 研究者와 學徒들의 研究環境은 決코 滿足치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實情이다. 이러한 逆境을 克服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는데는 學徒들의 協同과 團合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또한 모든 科學이 그렇듯이 育種學의 發達は 決코 흠어져 있는 個個人의 힘으로는 이룰수 없으며 學徒과 學徒間에는 勿論 機關과 機關間의 施設, 知識힘을 모으므로써 큰 成果를 거둘수 있다. 最近驚異의 對象으로 登場한 統一벼品種의 育種이 그 좋은 例이다.

眞實로 本學會의 重要한 役割은 會員들의 連合에 依한 研究의 促進과 全會員들의 뭉쳐진 힘으로서 育種學의 發達을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

3. 國際學會와의 紐帶強化

科學의 發達이 이에 從事하는 學徒들의 連合된 힘에 依하여 이루어진다는 事實은 한나라안에서만의 眞理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理由로 切迫한 世界食糧問題解決의 關鍵이 되는 育種學의 發達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歐羅巴地域과 亞細亞, 大洋洲地域에 各各 地域內의 國家間의 連合에 依한 育種學의 發達促進을 目的으로 하는 育種研究連合促進會가 組織되어 있으며 우리 韓國育種學會는 아시아大洋洲育種研究連合(Society for the Ad-